

2021 12th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2021 12th Resident Artists of Incheon Art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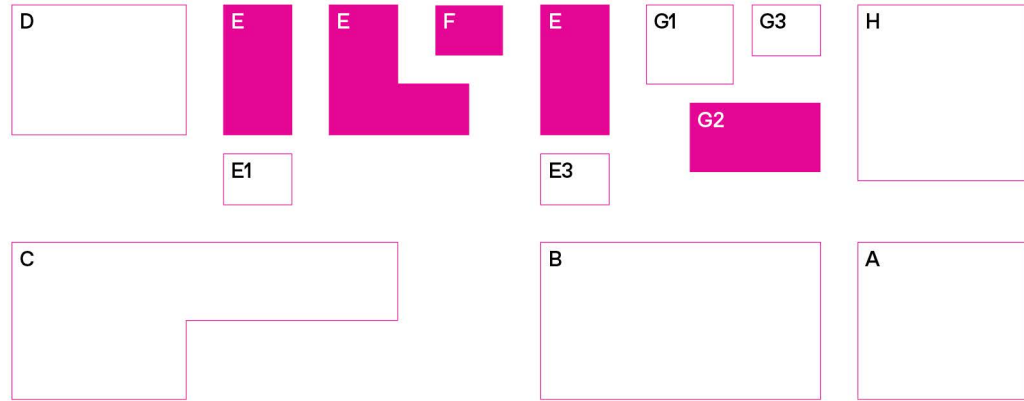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의 교류와 협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창작지원, 발표지원, 예술가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시각, 공연, 다원 예술과 같은 열린 장르의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실험적 예술 활동을 지지합니다. 더불어 지역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의제를 동시대 예술 담론으로 맥락화하고, 작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상상력이 실현되도록 기획 및 제작을 지원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는 국제네트워크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예술영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며 국제예술의 허브로서 기능하고자 합니다.

Running an artist-in-residence at its core, Incheon Art Platform (IAP) supports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and researchers working across various genres of art. With its exchange program, collaborative opportunities given across genres, and experimental artist exhibition programs, IAP pursues to achieve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consilience advocating the value of multimedia, de-categorization, and convergence of arts. Residency artists are selected in various genres including visual arts, performing arts, and interdisciplinary arts. IAP will continue to precede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projects that resurface its historical identities, and bring regional communities together, working as a global hub for contemporary arts and culture, while actively engaging with the city of Incheon.

시설 현황 FACILITIES



스튜디오 현황 ARTIST STUDIO



2021년 레지던시 프로그램 ARTIST-IN-RESIDENCE PROGRAM 2021

A	철통마당 Chiltong Madang	E1	E1 전시실 Gallery E1	G3	G3 전시실 Gallery G3
B	B 전시실 Gallery B	E3	E3 전시실 Gallery E3	H	북카페 인천서점 Book Cafe Incheonlibrairie
C	C 공연장 Theater C	F	F 게스트룸 Guest Residence F		
D	D 사무실 Office D	G1	G1 전시실 Gallery G1		
E	E 스튜디오 Studio E	G2	공동작업실 Communal Work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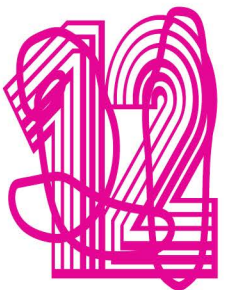
E1	정금형 JEONG Geumhyung	E9	김주리 KIM Juree	E17	갈유라 KAL Yu-ra
E2	이희준 LEE Heejoon	E10	양지원 YANG Jiwon	E19	이현민 LEE Hyunmin
E3	박경진 PARK Kyungjin	E11	최수련 CHOE Sooryeon	E20	윤제호 YUN Jeho
E4	윤지영 YOON Jiyoung	E12	이은새 LEE Eunsae	E21	박성준 PARK Seong Jun
E5	김지영 KEEM Jiyoung	E13	박관택 PARK Kwantaeck	E22	편대식 PYOUN Daesik
E6	구자명 KOO Jamyong	E14	최리나(지역연구 오픈랩) CHOI Lina (Open Lab)		
E7	김보민 KIM Bomin	E15	지박 Ji Park		
E8	배혜음 Hejum Bä	E16	임형섭 LIM Hyungsup		

• 국외 입주 예술가(E14) 및 국제 기관교류 입주 예술가(E18)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하지 못함
Due to COVID-19, the international residency and exchange program will not be run in 2021.

시각예술부문

VISUAL ART

갈유라	Kal Yu-ra	배혜음	Hejum Bä
구자명	KOO Jamyoung	양지원	YANG Jiwon
김보민	KIM Bomin	윤지영	YOON Jiyoung
김주리	KIM Juree	이은새	LEE Eunsae
김지영	KEEM Jiyoung	이희준	LEE Heejoon
박경진	PARK Kyungjin	정금형	JEONG Geumhyung
박관택	PARK Kwantaeck	최수련	CHOE Sooryeon
박성준	PARK Seong Jun	편대식	PYOUN Daesik



갈유라의 연작 시리즈 〈오토스포라(Auto-spora)〉에서 오토(Auto)는 ‘자가적’이라는 뜻을, 스포라(spora)는 ‘포자’를 의미한다. 물질세계와 비-물질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유기체 ‘오토스포라’를 물질의 기본 속성이나 본질적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사물의 잠재적인 속성에 의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개체로 작가는 정의한다. 이를 지역과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 관습과 믿음을 허무는 구조로 보고, 시간적 공간에 갇힌 사물들을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하며 사물의 속성과 위치의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한다. 입주 기간 동안 작가는 이의 2번째 시리즈인 〈오토스포라2: 활영통(活靈通)〉을 제작할 예정이다. 영상 속 시간은 스크린과 스케일의 유기적인 조화를 방해하거나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묘사된다. 화면 배율의 전환을 통해 과거를 조망하고, 빈 스크린은 채워지면서 미래로 나아간다. 화면 내 사물과 서사 이미지(narrative-image)는 길게 늘어나거나 움츠러들기를 반복하며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생동한다. 작가는 이러한 각 화면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스크린과 이미지 사이의 영(靈)적 이동을 드러내고자 한다.

작가는 동국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한국 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비디오아트 전문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개인전으로는 «보너스 룸»(갤러리175, 서울, 2019), «오토스포라1: 야곱의 사다리»(온그라운드2, 서울, 2018)등이 있으며 2018 한영 문화예술교류 파견지원 — 영국 발틱현대미술관 선정작가 등으로 참여한 바 있다.

KAL Yu-ra's series titled *Auto-spora* refers to an organism that travels between the material world and the non-material world. It self-generates alternations in an object's property and location, resulting in transforming the object's attributes. Such a system disrupts everything beyond regions and communities, and it exists in one's fragmentary perception of things and on the boundary of one's perception.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will present a video titled *Auto-Spora2: Answer the Spirit* (2021). The time in the video traverses the changing screen aspect ratios to unveil the past. The occupied screen points to a new screen that will lead to the future and interrupts or transforms the organic harmony between the screen and its scale. Each object and "narrative-image" repeat their lively motion of stretching and contracting itself as if they were alive. The artist attempts to present each video screen as a living organism and demonstrate the spiritual movement between the screen and the image.

The artist earned her BFA in sculpture from Dongguk University and completed coursework for the master's degree in video art at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artist's solo exhibitions include *Bonus Room* at Gallery175, Seoul (2019) and *Auto-Spora1: Jacob's Ladder* at Onground2, Seoul (2018). She was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UK/KOREA 2018 Artists' Residency Exchange Programme at 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and Art Space Pool's 2018 POOLAP (Pool Artist Incubating Program).



이내 눈앞까지 가득차고, 기변크기 기변체로, 2019
Finally, It Comes to the Front, Dimensions variable, mixed media, 2019

구자명은 기술의 빠른 변화가 시각예술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순수미술의 탐구 대상인 입체조형과 연계하여 질문을 던진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구분되는가? 디자인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범주에서 구동되는데 하드웨어인 전시장으로 이를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작가는 미래에 이러한 프로그램과 경쟁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보려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 한 해 동안 작가는 인천 지역에 머물면서 산재하는 다양한 근대 건축물을 분석해 건축의 형태를 소프트웨어로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형태 연구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정보를 변수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해 고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색다른 관점에서의 식별이 가능한 여러 디자인 방법론을 참조하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구자명은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에서 평면회화를 전공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대학원 과정에서 입체조형을 연구했다. «웹사이트 구조의 편집 방법 개발»(스페이스 월링앤달링, 서울, 2020), «PPB (Phoenix Phenotype Breeding)»(가변크기, 서울, 2018)에서 두 번의 개인전을 발표했다.

KOO Jamyoung is interested in how the experience of (software) technologies in change influences one's visual art practice. In alignment with this issue, he delves into three-dimensional forms—the subject for exploration in fine art—while referring to design methodology. At Incheon Art Platform, KOO will study and analyze the variable modern buildings frequently found in the region and explore the ways of compressing the architectural forms he discovers in software programs.

The artist majored in painting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and studied 3D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s Fine Arts graduate program. He had two solo exhibitions: *Development of editing methods for website structure* at Space Willing N Dealing, Seoul (2020) and *PPB (Phoenix Phenotype Breeding)* at Dimension Variable, Seoul (2018).



PPB, 가변크기, 2018
PPB (Phoenix Phenotype Breeding), Dimensions variable, mixed media, 2018

김보민은 산수화의 맥락 안에서 전통과 현대, 산수와 도시의 풍경에서 뒤섞여 영기는 문화적 지평을 회화와 드로잉, 벽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감정적 경험을 풍경에 대입하여 기록 밖으로 밀려났던 이야기들을 화면에 담아왔으며,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재료의 실험과 변주를 통해 매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실험한다. 레지던시 입주 기간 동안에는 근대개항장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인천아트플랫폼 일대를 거닐며 기억과 정체성 사이, 몸의 움직임과 풍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자 한다. 도시와 옛 것들 사이를 거닐며 발견한 것들을 '인지도(Mind Map)'의 형태로 화면에 담아낼 예정이다. 여정을 통해 찾아낸 과거의 잔해와 흔적들은 신화, 역사, 도시, 현상 등의 작가의 관심사와 얽혀 공간으로의 항해와 지도 그리기를 돕는 일련의 방향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전으로는 «나는 멀리 있었다»(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2019), «먼 목소리»(포스코미술관, 서울, 2016) 등이 있다. «해가 서쪽으로 진 뒤에»(우란문화재단, 서울, 2020), «One Shiny Day»(뉴델리 인도국립현대미술관, 뉴델리, 인도, 2019), «정글의 소금»(베트남여성박물관, 하노이, 베트남, 2018), «Permeated Perspective»(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2013) 등 국내외 여러 전시에 참여했다. 뉴욕 폴록-크라즈너 재단 그랜트와 중앙미술대전 우수상을 수상했다.

KIM Bomin works in painting, drawing, and mural painting to connect her personal experiences and various symptoms. Her works take the form of landscape painting, and she portrays the cultural horizons that traditions, modernity, mountains and waters, landscapes, and cities build up to. KIM applies her emotional experiences to topography and imagines stories left untold in documentation to create her pictures. Her practice is based on traditional painting methods, and she explor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media through experimenting with and creating variations of materials. During her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will explore the interactions between memories and identities, bodily movements and landscapes. The artist will stroll between the cities and remains from the past and bring in her discoveries to create a 'cognitive map.' The elements that she finds while searching for debris and traces will be integrated into her interests, such as mythology, history, cities, and phenomena, which will eventually help direct her ways of navigating the space and map drawing.

Her solo exhibitions include *I Was Far Away* at Project Space SARUBIA, Seoul (2019) and *Distance Voices* at POSCO Art Museum, Seoul (2016). The artist is a recipient of the Pollock-Krasner Foundation Grant and won the Award of Excellence in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competition.



수레문, 가변크기, 벽면에 회화와 드로잉 설치, 2019
Suramen,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of drawings and paintings on a wall, 2019

김주리는 흙과 물, 불이라는 자연 요소의 물질적 속성이 상호 관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의 은유를 작품으로 형상화한다. 작가는 물질(material)의 순환과 그 안에서 일시적으로 머물 수 밖에 없는 시간적 경험을 조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고정적 형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 ‘모습’에 젖어있는 흙의 유동적 상태를 의미하는 ‘모습[某濕]’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을 덧붙여, 질료와 물이 지니는 생명의 감각을 체현하게 만드는 연작을 선보인 바 있다. 작가는 입주 기간 동안 서해 항만에 위치한 인천에 머물며 «모습 某濕 Wet Matter»의 모티브가 되었던 중국 단둥으로의 뱃길 여행을 통해 장소와 지리에 대한 몸의 경험을 작업적 언어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작가는 «모습 某濕 Wet Matter»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20), «일기(一期)생멸(生滅)»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2017) 등의 개인전과 «Breaking Ground» (자와르 칼라 켄트라, 인도, 2018) 등 국내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0년 제10회 송은미술대상전 대상, 2012년 소버린 아시안 아트 프라이즈를 수상했으며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 중국 허난 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모습 某濕 Wet Matter 2, 505(w)·208(d)·240(h)cm, 젖은 흙, 혼합매체, 연필·구연산, 2020
Wet Matter 2, 505(w)·208(d)·240(h)cm, wet soil, mixed media, scent of cedarwood, 2020

KIM Juree finds metaphors of birth and death in the interactions among physical traits of natural elements. Using them as inspirations, KIM is currently working on sculpting the life cycle of materials and the experience of temporality in the circulation.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will create and extensively develop a series concerning the 'Wet Matter' that reflects the notion of perception and physicality—which she has recently introduced as her artistic language. It refers to the paradoxical ontology of a form that appears static while maintaining its humid and fluid state. She plans to present the notion of 'Wet Matter', the perpetual cycle of life that includes the production of biological vitality and material wavelengths that flow along the inside and the surface of the *damp* matter, which occupies the 'body' of the solid mineral, *the soil*. An hour from Dandong, China, which was a motif for *Wet Matter*, the artist will explore Incheon, a seaport city located on Korea's west coast. Through the waterway journey, KIM intends to study how the bodily experience of a place and geography can be transformed into her artistic language.

Her solo exhibitions include *Wet Matter* at SongEun Art Space, Seoul (2020) and *Impermanence* at Project Space SARUBIA, Seoul (2017), and many more KIM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Breaking Ground* at Indian Ceramics Triennale, Jaipur, 2018. Kim won the Grand Prize in the 10th SongEun Art Award in 2010 and also received the 2012 Sovereign Asian Art Prize. Her works are in the collection of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and the Henan Museum, Zhengzhou.

김지영은 삶의 부조리한 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뜻밖의 사고처럼 벌어지는 사회의 사건 배면에 위치한 구조적 문제와 그 사건이 돌출된 양상을 통해 개인과 사회적 사건이 맺는 관계에 몰두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세월호가 드러낸 세계의 균열에 천착해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입주 기간 동안에는 작품 제작을 위한 연구과정을 세분화하여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더불어 초가 심지를 태우며 발하는 빛의 다양한 열감을 포착하여 담아낸 <붉은 시간> 연작을 보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그리기 방식을 확장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작가는 «기울어진 땅 평평한 바람»(오뉴월 이주현, 서울, 2015)과 «달린 창 너머의 바람»(산수문화, 서울, 2018) 등의 전시를 통해, 연대의 가능성으로서의 죽음과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재난의 유사한 구조를 탐구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빛과 숨의 온도»(WESS, 서울, 2020)에서는 재난이 훼손한 터전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한 사회의 역사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간에 대한 사유로 담아냈다.

KEEM Jiyoung's art derives from her interest in the absurdity of systems in life.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artist has paid attention to the fracture of the world, which was uncovered by the Sewol incident in 2014.

Delv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a social event, KEEM previously explored death as a possibility of solidarity and dealt with the repeated disasters in South Korea in *Tilted Land Even Wind* at O'NewWall E'Juheon, Seoul (2015) and *Wind Beyond the Closed Windows* at Sansumunhwa, Seoul (2018). She developed these ideas further in *Glow Breath Warmth* at WESS, Seoul (2020), in which she contemplated time by investigating how an individual's life turns into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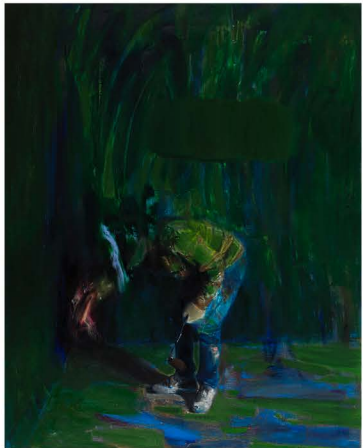
«빛과 숨의 온도» 전시전경, WESS (웨스), 서울, 2020
Exhibition view of *Glow Breath Warmth*, WESS, Seoul, 2020

박경진은 그리기라는 행위와 연결된, 생업과 작업 사이에 놓여 있는 작가의 실존(생존)의 모습을 회화 작업으로 표현한다. 세트장이라는 생업의 현장에서 형상과 배경, 노동과 유희, 일과 작품 사이에 놓인 작가는 각 요소의 다름을 찾기보다는, 그곳에서 발견한 성질들의 충돌과 접목의 과정을 통해 교집합을 찾는다. 최근에는 각종 물질과 오브제를 이용, 평면회화에서 확장하여 입체적으로 변형한 공간을 만드는 공간회화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의 충실한 재현을 목적으로 삼는 세트장의 모습을 전유하며, 세트가 가진 성질을 회화로 접목하는 방법의 연구를 통해 '감각의 상상력'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촬영 세트장에서 보았던 색들의 추상적인 중첩, 미완의 거대한 조형물에서 느낄 수 있는 비현실적인 풍경들에서 비롯된 미적 감각과 경험을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작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서양화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수학하였으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2018), 금천예술공장(2016)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 38회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색, 공간»(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2020), «색, 뒤»(갤러리조선, 서울, 2019), «현장»(인사미술공간, 서울, 2018)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2019),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2018)을 포함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PARK Kyungjin creates paintings to portray the artist's existence (survival) between his livelihood and art practice—which are connected by the act of painting. He approaches the place of his day job, a film set, as the space between image and background, labor and play, and work and artwork. Recently, the artist has been experimenting with “space-painting,” which reflects painterly characteristics in various materials and objects, by expanding his two-dimensional painting to a three-dimensional space. In his experimentation, he appropriates a film set's authentic appearance and explores painting as an endeavor to expand the ‘sensory imagination’. At Incheon Art Platform, PARK will take the abstract overlaps of the remaining colors from the previous set of a music video production, and visualize “landscapes” that can be found in large unfinished structures. The outcome will be an installation piece, which will transform an amorphous three-dimensional space into a visual form with various painterly colors.

The artist holds both his Master's and Bachelor's degrees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His solo exhibitions include: *Color, Space* at INDIPRESS Gallery, Seoul (2020); *Behind the Color* at Gallery Chosun, Seoul (2019); and *Site* at Insa Art Space, Seoul (2018). He received the Grand Prize in the 2016 JoongAng Fine Arts Prize competition.



초록 덩어리, 94x72.5cm, 캔버스에 유채, 2020
Green Mass, 94x72.5cm, oil on canvas, 2020

박관택은 동시대를 살아가며 발견하는 여러 현상을 관객의 신체 경험으로 치환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비가시적이지만 포착 가능한 인과성을 지닌 여러 사회 현상들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돈되지 않은 심리상태 및 태도에 관심이 있다. 오감의 일부를 통제하거나, 확장을 유도하는 조형언어를 활용하여, 특정 이슈에 대해 무관심한 이에게도 유효할 수 있는 경험적 구조를 생성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 인천에 머물며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도 유효한 물리적, 실재 경험과 이 과정에서 더욱 세분화되는 시공간의 층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어제모레»(경기도미술관, 안산, 2020), «버퍼링»(소마미술관, 서울, 2019), «여백: Spinoff from the facts»(인사미술공간, 서울, 2019) 등의 개인전과 영국사치 갤러리(런던, 2020), 러시아에르미타주미술관(러시아, 2020), 두산갤러리(뉴욕, 2018), 스맥멜론(뉴욕, 2015) 등의 그룹 전시에 참여했다. 경기창작센터(안산, 2020), 국립현대미술관고양리지단시(고양, 2019), 아도(뉴욕, 2013) 등의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작가(2018)로도 선정된 바 있다.

PARK Kwantaeck's work focuses on transforming contemporary phenomena into the audience's tangible and physical experience. He is interested in social phenomena, which are invisible but with perceptible causes and effects, and the human psychology and perspectives that are not fully formed around the occurrence. PARK utilizes his art language in a way that either partly restricts the five senses or induces their expansion to produce an experiential system that works for even someone who feels indifferent to particular issues.

His solo exhibitions include *OUTDATED FUTURE* at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2020); *Buffering* at SOMA Museum of Art, Seoul (2019); and *Blank Space: Spinoff from the facts* at Insa Art Space, Seoul (2019). He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venues such as Saatchi Gallery, London (2020);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 (2020); DOOSAN Gallery, New York (2018); and Smack Mellon, Brooklyn (2015). PARK participated in artist residency programs a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2020); MMCA Residency Goyang, Goyang (2019); and Yaddo, Saratoga Springs (2013). He was one of the visual artists selected for the AYAF (ARKO Young Art Frontier), the Arts Council Korea i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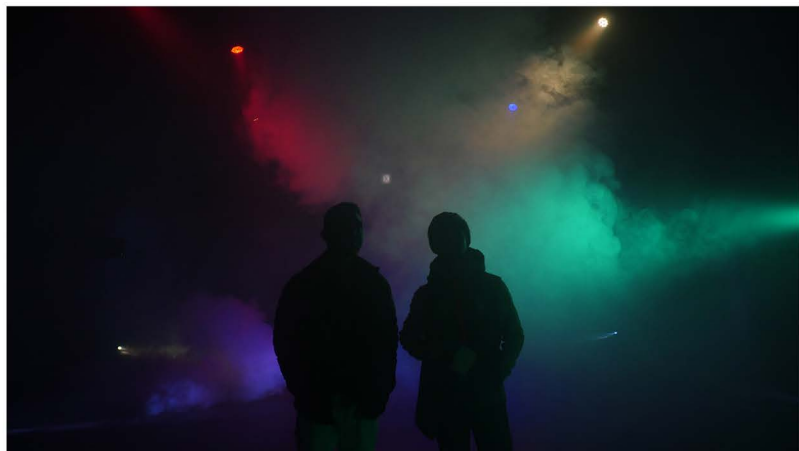
어제모레, 거면성취/표포만스, 2020
Outdated Future, Installation/Performance, 2020

박성준은 영화/영상, 인터랙티브 설치, 미디어 퍼포먼스 등의 작업을 통해 인간의 관념과 실재 사이의 부조리를 탐구해왔다. 작가가 영상 언어를 해체하거나 조합해 제시하는 실재와 다른 혼돈과 괴리의 공간은 마치 세트장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재현(représentation)되고, 공간에 덧붙여진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불안의 갈등을 드러낸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지난 몇 년간 진행해 온 프로젝트 'cinema experience, with space without screen'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서사와 상호작용성이 결합된 영화적 인터랙티브 설치실험으로 영화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는 상영관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 덧씌워져, 관람자들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전개된다. 작가는 영화와 설치미술 그리고 인터랙티브 장치들이 뒤섞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술작품 만들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PARK Seong Jun, has worked in various art forms, including film/video, interactive installation, and media performance, to explore the absurdity between human consciousness and reality. His installations are created by deconstructing or assembling the language of moving image to portray a space of chaos and chasm, which is in great contrast with reality. They are represented as studio sets and reveal human desires and anxiety in a cinematic narrative.

During his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the artist will develop his project *cinema experience, with space without screen*, which he has been working on the past few years. It is a cinematic interactive installation experimentation that combines the narrative and interactivity. A movie-like story progresses in a physical space - not on a theater screen - following the audience's positions and movements. Through this mixture of film, installation, and interactive apparatus, the artist attempts to make art that can be appreciated by wider audiences.



YOUR FLAME, 거울크기, 인터랙티브 설치, 2017
YOUR FLAME, Dimensions variable, interactive installation, 2017

배혜음은 물질로서의 회화를 바라보면서, 그림과 관람자의 의식 속 대상이 곧장 연결되는 거리를 조절한다. 현재 작가는 추상회화의 해석이 어려운 요소들을 활용한 암호와 같은 말하기를 실험 중에 있다. 추상회화를 통해 우리 앞에 진행 중인 어떤 현상을 이성적으로 정보화하지 않고 인지하는, 원초적 시지각을 복원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작가는 어느 대상이 출현한 이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변모된 대상이 또 다른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놓이게 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작가는 인천의 개항 시기를 살펴보고, 당시 세계를 마주하는 새로운 개념이나 방식이 활발히 유입되던 상태와 동시대의 모습을 평행하여 두고, 탐색하며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서울, 2021), 두산 갤러리(서울, 2019), 하이트컬렉션(서울, 2018), 학교재(서울, 2018),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서울, 2016)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개인전 «플롯 탈주»(금호미술관, 서울, 2021), «Fyka Foretold... (예지하는 파이카)»(SeMA창고, 서울, 2021), «고리를 삼키는 뱀»(OCI미술관, 서울, 2018), «Circle to Oval»(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2017) 등에서 작업을 선보인 바 있다.

Hejum Bä looks at painting as a material, and she focuses on adjusting the objective distance between her image and the subject that the audience is familiar with. The artist is currently experimenting on speaking with codes (cipher), a form which partly borrowed from the components in the incomprehensible elements of abstract painting. Bä is interested in restoring one's primal visual perception, which allows one to recognize an occurrence in progress without rationally informatizing it, through abstract painting. The artist is interested in the condition in which certain items/or objects appear and how they locate themselves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change of places. In this context, the artist will closely look into the Opening Port era in Incheon, where the previous generations were faced with foreign concepts and new methods in comparison to the contemporary era. The artist intends to approach this proces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Her recent group exhibitions were held at MMCA, Seoul (2021); DOOSAN Gallery (2019); HITE Collection, Seoul (2018); Hakgojae Gallery, Seoul (2018); and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Seoul (2016). Her solo exhibitions include exhibitions include *PLOTLESS* at Kumho Museum of Art, Seoul (2021), *Fyka Foretold...* at SeMA Storage, Seoul (2021); *Teeth on Tail* at OCI Museum of Art, Seoul (2018); and *Circle to Oval* at Project Space SARUBIA, Seou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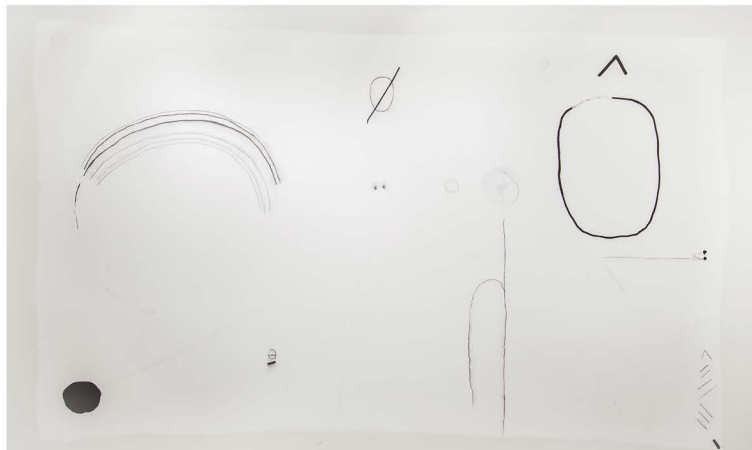


건축은 되지만 건축, 145.3x130.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Architecture before Construction, 145.3x130.3cm, acrylic on canvas, 2019

양지원은 드로잉 행위를 통해 '그리기'와 '쓰기'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총체적 공간의 한 형태로서) 전시장이라는 물리적 조건 속에 드러내는 내재적 관계로 현실화함으로써, 드로잉의 조형적, 언어적 요소 간의 미묘하고도 무형한 경계를 실험한다. 작가는 화이트 큐브(White Cube)라는 전시공간의 형태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입주기간 동안에는 '그리기/쓰기'라는 이중의 행위에 관한 질문에 집중하면서 글자의 형태와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작가만의 독특한 시청각적 관점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작가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조형예술과 사운드 인스톨레이션을 전공했다. 주로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드로잉-설치, 사운드, 텍스트 매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모음_Moeum»(SeMA 창고, 서울, 2019), «Growing Drawing»(더 빌리지 프로젝트, 서울, 2018), «탑, 씨, 꽃꽂이»(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7)의 개인전과 «당장의 질문»(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0), «더 쇼 머스트 고 온x IAP»(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0), «디어 드로잉»(드로잉 룸, 서울, 2019), «미세한 기움임: 씨-음»(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청주, 2018) 등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YANG Jiwon studied fine arts in France and sound installation in Austria. Based on drawing practice, the artist works primarily in drawing-installation, sound, and text. YANG produces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rawing and writing and uses them to shape the entire exhibition space to create connections among the space's physical structures, revealing the intangible borders between drawing's artistic elements and language. The artist will continue to delving into her questions in the form of the exhibition space known as 'White Cube' from different angles. During her residence in Incheon, the artist will focus on the dual act of 'drawing and writing' and analyze how words form themselves with sound.

Her solo exhibitions include *Moeum* at SeMA Storage, Seoul (2019); *Growing Drawing* at The Village Project, Seoul (2018); and *Tower, Seed, Floral arrangement* at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2017). Her works were featured in group exhibitions *Platform Artists: Questions for NOW* a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20); *The Show Must Go Onx IAP* at Incheon Art Platform Warehouse Gallery, Incheon (2020); *Dear Drawing* at Drawing Room, Seoul, (2019); and *Slightly inclined ears: C-Eum* at Daecheongho Art Museum, Cheongju (2018).



JWYD00419, 거변크기, 벽 위에 이크릴, 풀터, 목탄, 2019
JWYD00419, Dimensions variable, Acrylic, Chalk, charcoal on the wall, 2019

윤지영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개인의 삶의 환경으로 주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더 '잘' 살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행동양식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감춰져 드러나지 않는 내부 구조에 주목하기도 한다.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현재의 상황은 당연시되었던 시공간에 대한 경험을 바꿔 놓으며, 우리의 소통 방식과 사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이 인식의 방향을 우리 자신의 내부로 향하게 만들었다고 간주한다. 이는 자신의 상태에 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끈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를 통해 작가는 현 상황에서 상상력, 환상, 망상 등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며 영향을 주고 받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최근 참여한 전시로는 «하나의 사건»(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0) «밤이 낮으로 변할 때»(아트선재센터, 서울, 2019) «에이징 월드»(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9), «생태감각»(백남준아트센터, 용인, 2019) 등이 있다.

YOON Jiyoung is interested in unveiling one's attitude of acceptance and behaviors to live better or improve things when an incident or circumstances come to define their surroundings. The artist also pays attention to the internal structures that are well-hidden in various ways. As we are unable to connect and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in person and each person has to spend more time alone, our communication methods and thinking process are affected. We must newly recognize our experience of time and space, which has been taken for granted. This situation we are in now directs us to look at ourselves. The artist pays attention to this circumstance and raises questions. When one stays in a state that they cannot stop thinking about their conditions—i.e., when one's self-consciousness becomes intensified—for an extended period, what kind of changes will occur in building (human) relationships? The artist intends to look at how imagination, fantasy, and delusion exist in our current situation and the effects they bring in from various perspectives.

Her recent exhibitions include *This Event* at Seoul Museum of Art, Seoul (2020); *Night Turns to Day* at Art Sonje Center, Seoul (2019); *Aging World* at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9); and *Ecological Sense* at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2019).



모난정음, 800x800x150-170cm, 설치된 유리 깔때기, 백상 라텍스, 폼, 천 등 혼합매체, 2016
Aks, 800x800x150-170cm, silicone, glass funnels, latex, urethan foam, fabrics, metal and mixed media, 2016

이은새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불만과 그것에 반응하는 저항의 시도, 또는 상상들을 수집하고 이를 이미지로 기록한다. 최근에는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면서, 쉽게 대상화되는 다양한 인물에 관심을 두고, 규정되거나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이미지의 피사체를 그려나가고 있다.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기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방법론적인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보여주었던 단순한 표현, 반복되는 형식과 변주된 장면들을 통해 만들어낸 리듬의 형식을 이번에는 인물화에 대입해보고자 한다. 반복되는 형태의 인물과 미세하게 변주된 인물들이 함께 뒤섞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더욱 심화된 내용적 접근과 기술적인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은새는 2020년에 개최한 개인전 «As usual: 늘 마시던 길로»(갤러리2, 서울)에서는 기존 이미지 구성 방식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한 새로운 형식의 도전을 시도한 작업들을 선보인 바 있다.

LEE Eunsae gathers various kinds of frustrations one faces in daily life, attempts to rebel against them, and fantasies, and she records her findings in image. Recently, the artist has contemplated the ways of producing and consuming images. Having an interest in diverse individuals that are readily objectified, she paints pictures of the subjects who refuse to be defined or submissive. During her time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plans to apply her methodological study that she previously tried to creating portraits. During the year 2020, the artist took a methodological approach into her practice and created rhythms with simplified images, in a repetitive form, and with image variations. The artist will bring the rhythms into her portrait paintings. She will develop works that feature an individual in a recurring form, all blended with slightly different versions of the person, to explore different processes toward the subject matters and sharpen her technical skills of painting.

For her 2020 solo exhibition titled *As usual* at Gallery2, Seoul, she explored new painting styles while reexamining her own method of creating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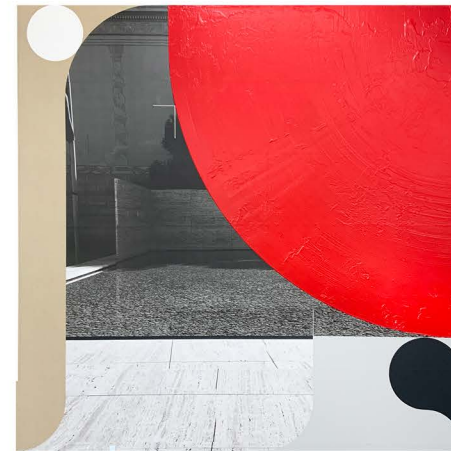
밤의 괴물들 - 비치워크, 181.8×227.3cm, 캔버스에 유채, 2017
Night Precks - Beach Work, 181.8×227.3cm, oil on canvas, 2017

이희준은 서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도시를 여행하며 수집한 장면을 바탕으로 회화작업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도시가 생산해내는 다양한 문화, 경제, 자본 등의 요소를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고, 반대로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탐구 중이다. 올해 레지던시에 머물며 진행할 <Image Architect>는 2016년부터 이어져 온 도시와 건축에 대한 관심을 포토콜라주 기법과 추상회화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작가는 도심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건축적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개입할 수 있을지 실험하며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준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및 조소과를 졸업한 뒤, 2014년에 영국 글라스고 예술대학에서 순수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목화랑(서울, 2017), 기고자(서울, 2016), 위켄드(서울, 2017) 등에서 개인전을,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서울, 2019), 뮤지엄 산(원주, 2019), 세화 미술관(서울, 2019)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신생 공간 '노토일렛'(서울, 2014-2015)을 운영하며 다수의 전시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2019년 퍼블릭아트 주관 뉴히어로 대상 작가로 선정 된 바 있다.

LEE Heejeon has traveled to East Asian cities, including Seoul, and used the images he collected during his trips to create paintings. Looking at his surroundings from a traveler's perspective, the artist explores how the diverse cultures, boundaries, and capital produced by cities are consumed by individuals and how individuals are affected by them. Since 2016, the artist has continued this work to express his ongoing interest in cities and architecture in photo-collage and abstract painting. *Image Architect* is the project that the artist will devote his time to during his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He will explore how his thinking process responds to and intervene i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s widely found in various locations of Incheon.

The artist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with a BFA in painting and sculpture and earned his MFA from the Glasgow School of Art, UK in 2014. His notable solo exhibitions were held at venues in Seoul, including Yeemok Gallery (2017), Kigoja: Independent Arts Space Initiative (2016), and Weekend (2017). He ran a sinsaeng art space called No Toilet in Seoul from 2014 to 2015 and produced many exhibitions. He was a selected artist for the 2019 Public Art New Hero. His works are in the collections of MMCA Art Bank in Gwacheon and Seoul Museum of Art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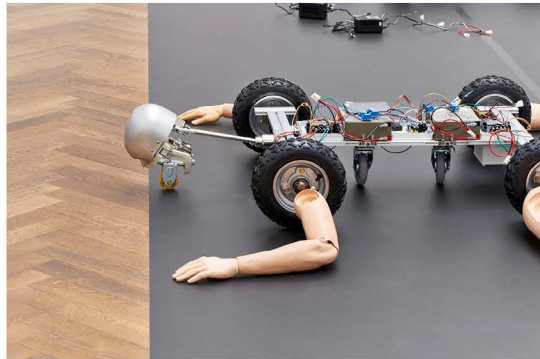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no.1, 160×160cm, 캔버스 위에 아크릴과 포토콜라주, 2021
Barcelona Pavilion no.1, 160×160cm, acrylic and photo-collage on canvas, 2021

정금형 JEONG GEUMHYUNG

정금형은 무용가, 퍼포머, 안무가, 작가로서의 독특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왔다. 작가는 올해 신작인 <장난감 프로토타입>(가제)을 제작할 계획이다. 8월 중 처음 공개될 이 작업은 2019년 쿤스트 할레 바젤 개인전에서 선보인 첫 번째 로보틱 조각 작품 <홈메이드 알씨 토이>에서 비롯된 로봇 우화 시리즈 중의 하나이다. 매 단계 진화하는 작가의 '장난감', 즉 그의 로봇은 비전문가인 작가가 스스로 공부하며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직접 제작하는 DIY 로봇이다. 작가의 '장난감' 설계 계획은 끊임없는 문제에 봉착하지만 또 의외로 그럴 듯하게 해결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완성된 로봇들은 서투른 동작으로 꿈틀꿈틀 움직이며,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정금형은 호서대 연극영화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졸업했고,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연출과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국내외 다양한 페스티벌과 전시에 참여했으며, <7가지 방법>(2009), <유압진동기>(2008), <히트니스 가이드>(2011) <심폐소생술 연습>(2013), <재활훈련>(2015) 등의 공연을 통해 무용가, 퍼포머, 안무가, 작가로서의 독특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왔다. 제16회 에르메스재단 미술상 수상자이며, 2016년 아돌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린 첫 개인전 <개인소장품>을 통해 또 다른 시도를 보여주었다. 최근작으로는 2019년 쿤스트 할레 바젤에서 개최한 개인전 <홈메이드 알씨 토이(Homemade RC Toy)>등이 있다.



「홈메이드 알씨 토이」 설치 전경, 쿤스트 할레 바젤, 바젤, 스위스, 2019
Installation view of *Homemade RC Toy* at Kunsthalle Basel,
Basel, Switzerland, 2019
Photo: © Philipp Hänger/Philipp Hänger / Kunsthalle Basel

JEONG Geumhyung is a choreographer and performance artist whose practice began in theatre and has extended to encompass installation and film. In her work, she constantly negot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body and the things surrounding it. She has been invited to exhibit her works worldwide, including at the 9th Asia-Pacific-Triennial in Brisbane, ImPulsTanz in Vienna, Kunstenfestivaldesarts in Brussels, and her solo exhibition at the Kunsthalle Basel. In 2014 she received the Zürcher Kantonalbank Acknowledgement Prize of Zürcher Theater Spektakel and in 2015 she was awarded the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Art Prize.

Toy Prototype is part of a developing series of a robotic allegory that began with the first robotic sculpture, *Homemade RC Toy*, conceived for the solo exhibition at Kunsthalle Basel in 2019. Evolving at every stage, JEONG Geumhyung's "toys" are DIY robots built by the artist herself, an amateur who has to learn mechanisms, electronic circuits and programming step by step. Although JEONG's plan to create a "toy" stumbles into problem after problem due to a lack of expertise, brilliant solutions are found and the completed robots wiggle clumsily, making unintended movements. At Incheon Art Platform, the robotic sculptures will be presented alongside video archives of the production process, capt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EONG Geumhyung, and her robots.

최수련 CHOE SOORYEON

최수련은 동양화를 전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대에 재현되는 동양풍 이미지의 양상과 그것이 소비되는 방식을 지켜보며 그림을 그린다. 작가는 근대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낯고 이상한 것으로 치부되는 '동양적'인 것들을 반쯤은 의심하면서도 좋아하고, 그것의 효용을 다시금 상상해본다. 동북아시아가 공유하는 전통적인 클리셰 이미지를 바탕으로 비애, 여성, 현실과의 괴리, 내면의 오리엔탈리즘, 의심, 무지와 부조리 등을 그려내고자 한다.

최근에는 <태평녀> 연작과 더불어 한자보다 '한글이 더 익숙한 세대를 위한' 필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태평광기』나 『요재지이』 등의 고전 설화 속 기존의 권선징악적 서사 구조와 맞지 않는 황망하고 짧은 이야기나, 70-80년대에 유행했던 도사와 귀신 영화에 등장하는 대사 중에서 귀신의/귀신에 관한/귀신을 향한 발화 등을 수집하여, 한자 원문과 영어 혹은 한글 해석을 병치하는 작업이다. 텍스트를 수집하고 번역을 대조해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부하는 듯한 제스처'와 마치 처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처럼 뭔가를 다듬어나가는 행위인 습자/습화의 흔적을 작품 내에 포함시키는 회화작업을 계속해서 연구할 계획이다.

CHOE Sooryeon did not major in Asian painting. However, her works observe how Asian images are represented and consumed in contemporary time. The artist is half-suspicious of the things in the 'Asian-style,' which people have regarded as old and odd in Korean society since the modernization period. Simultaneously, CHOE is hopelessly in love with them and re-imagines utilizing them. Using the traditional cliché images commonly shared by Northeast Asian countries, she paints grief, women, and separation from reality, internalized orientalism, doubt, ignorance, and absurdity.

Along with her *Carefree women* series, the artist has recently been working on transcribing text for the generations more familiar with the Korean characters than the Chinese characters. The project involves gathering the laughable short stories that do not fit into the existing narrative of poetic justice in traditional mythologies such as *Taiping Guangji* and *Liaozhai Zhiyi*. Other elements of the project include utterances of/about/to the ghosts found in the supernatural Taoist and ghost films, which were popular in the 1970s and 80s. Then she juxtaposes the original Chinese text to its English or Korean translations. CHOE plans to continue creating works featuring 'study-like gestures' that occur while collecting texts and when comparing different translations. While carrying on paintings containing the traces of writing or painting practices that may be evidence of a first-time painter polishing their skills.



태평녀, 린넨에 유채, 145x12cm, 2020
Carefree women, Oil on Linen, 145x12cm, 2020

편대식은 이미지와 시간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으며, 현재는 이미지를 소멸시키고 '나'라는 매개를 통해서 시간을 물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연필로 작업의 표면을 칠하는 지난한 반복적 행위를 통해 시간을 기록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개항기 근대 건축물이 보전되어 과거와 현재가 혼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개항으로 인한 문화의 뒤섞임을 표출하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연필로 칠한 표면은 마주하는 공간을 비추는데, 시간과 문화가 뒤섞여 공존하는 공간에 작품이 개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순간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풀어내고자 한다.

작가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조형문화 예술을 전공했다. 개인전으로는 «ENCOUNTER» (홍티아트센터, 부산, 2020), «A Series of Moments; 순간의 연속», ((재)한원미술관, 서울, 2017), «퀀텀점프: EXISTENCE»(경기도미술관, 안산, 2016)이 있으며,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오산시립미술관, 서울대미술관, 고양아람누리미술관, 등을 포함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0년 부평영아티스트 대상을 비롯하여 성북 N 작가공모(2019), 퍼블릭아트 뉴히어로(2015) 등에 선정 및 수상한 바 있다.

PYOUN Daesik's practice involves questions a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and temporality. He is currently working on removing images and materializing time through the mediator 'I'. During his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will work on documenting time by filling in the picture plane with a pencil—a tedious, repetitive process. He will fully take advantage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Incheon, where along some modern architecture from the Open Port period,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mixed together. The artist will create a temporary installation that presents the in-between space among the varied cultures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time of opening the Port of Incheon. The picture surface, colored in pencil, reflects the time and space in front of it. Temporarily installed in the area, the work intervenes into the blended space, and creates dynamic images corresponding with moments of various time.

PYOUN studied painting at college and fine arts in graduate school. His solo exhibitions include: *ENCOUNTER* at Hongti Art Center, Busan (2020) and many more. He won the Grand Prize in the Bupyeong Young Artist Award competition and was a selected artist for the 2019 Seongbuk N Artist Open Call, and the 2015 Public Art New H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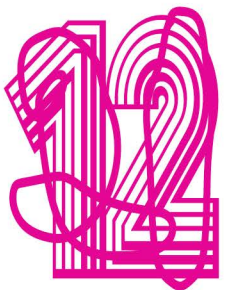


안경(鏡), 나무패널에 연필, 122x244cm(각각), 2019
Black Lead Mirror, pencil on wood panel, 122x244cm (each), 2019

공연예술부문

PERFORMING ART

윤제호 YUN Jeho
이현민 LEE Hyunmin
임형섭 LIM Hyungsup
지박 Ji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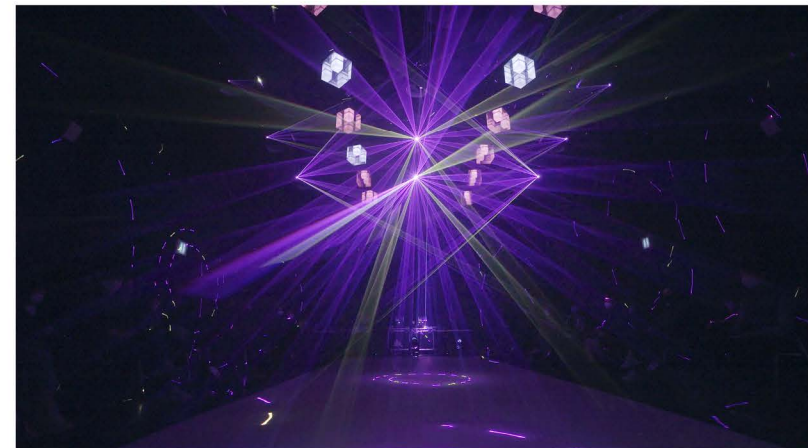


윤제호는 컴퓨터로 디자인된 소리와 광학 장치의 빛으로 공간을 채워 자신이 상상한 디지털 세계를 현실 공간에 구현한다. 작가는 소리, 빛과 공간 자체를 언어화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기존의 관람, 청취 방식을 지양하며 관객이 작품 안을 거닐고, 빛과 소리를 만지며 얻는 촉지적 감각을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탐색하도록 유도한다. 작가가 구축한 비물질적 세계의 이야기는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하다. 인천아트플랫폼 일대는 일제 개항기 당시의 문화와 중국의 차이나타운 문화 등 다양한 시간과 공간이 혼재하는 매력적인 장소이다. 작가는 공간 전체를 오디오-비주얼 작품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레지던시 일대의 독특한 시공간성을 소재로 삼아, 작가만의 소리와 빛으로 새롭게 표현하고자 한다.

윤제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테크놀로지 과에서 컴퓨터 음악 작곡 전문사를 취득했으며, 주요 공연과 개인전으로는 1=0(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0), <휴식동굴 339>(미디어338, 광주, 2019), <공간에서 공간으로>(경기창작센터, 안산, 2017), <SOUNDHUE>(문래예술공장, 서울, 2015) 등이 있다.

To materialize his imaginary digital world in a real space, YUN Jeho fills up the room with computer-generated audio and the lights from optical apparatuses. The artist verbalizes sound, light, and space to create narratives and raises questions. YUN refuses conventional ways of audience viewing and listening. Instead, he allows his audience to walk inside his work and touch the light and sound. Bringing audiences a tactile experience and an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viewers restructure and explore their own narratives. The stories of the non-material world reflect the artist's concerns for our existence in the era, where the real and the virtual blend together. They also serve as the artist's own narratives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 “Where do I belong?” as he explores boundaries. Incheon Art Platform's surroundings reflect varied periods and spaces, such as the culture of moderniz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and Chinatown culture. Using these unique temporal and spatial aspects of the region as materials, the artist will create sounds and lights in his own style to reimagine Incheon Art Platform's entire space into an audio-visual piece.

The artist earned his MA in computer music technology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is performance and solo exhibitions include 1=0, *One digit represents one soul* at IAP, Incheon (2020), *Cave for Rest 338* at Media 338, Gwangju (2019), *From One Space to Another* a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2017), *SOUNDHUE* at Seoul Arts Space Mullae Box Theater, Seoul (2015).



1=0, 인터미디어공연, 45분30초, 인천아트플랫폼 C 공연장, 2020
1=0, One digit represents one soul, Intermedia Performance, IAP Theater C, 45min 30sec, 2020

이현민
LEE HYUNMIN

nixony0303@gmail.com
www.artlabmilo.com

이현민은 음악과 사진, 영상을 접목하여 일반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경험들에 대해 탐구하는 작업을 한다. 작가는 현재 제작 중인 'Macro Cosmos'라는 시리즈의 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상과 미디어를 접목하여 하나의 악기와 독주 연주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복합 작품을 구상 중이며, 이를 인천아트플랫폼의 공간적 특성에 맞추어 선보일 예정이다.

이현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테크놀로지 과에서 컴퓨터 음악 작곡 전문사를 취득했다. ArtLab MILO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예술가들의 이미지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하며 음악교육활동을 위해 해마다 네팔을 방문하고 있다. 네팔에서의 리서치, 사진 작업을 토대로 현대백화점 H Gallery, 목인갤러리, 토포하우스갤러리 등에서 다수의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다. 주요 음악작업으로는 'Sadness of Ramah'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0), 'Forgotten Voices for Four Clarinets' (예술의 전당, 서울, 2010), 'Struggling for solo percussion' (fest-M, 서울, 2015), 'Macro Kairos'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주, 2017), 'Infinity Resonance of Macro Cosmos' (플랫폼엘, 서울, 2020) 등이 있다.

LEE Hyunmin's work uses music, photography, and moving image to explore the senses beyond human perception. During his stay at Incheon Art Platform, he plans to premiere a new piece as part of the *Macro Cosmos* series that he is currently working on. It will be an interdisciplinary piece that refocuses a soloist and a musical instrument via moving image and media technology. It will be site-specific to the unique spatial environment of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studied classical composition and music technology. He also works in photography. He had several photography exhibitions about Nepal at galleries in Seoul, including H Gallery, Mokin Gallery, and TOPOHAUS Gallery. His significant musical accomplishments include: *Sadness of Ramah* at Sejong Center, Seoul (2010); *Forgotten Voices for Four Clarinets* at Seoul Arts Center (2010); *Struggling for solo percussion* at fest-M, Seoul (2015); *Macro Kairos* at Asia Culture Center, Gwangju (2017); and *Infinity Resonance of Macro Cosmos* at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Seoul (2020). The artist visits Nepal every year to provide music education and conduct research. He also founded his own company ArtLab MILO, which is for archiving artists' work images.



독주악기와 전자음악을 위한 'Infinity Resonance of Macro Cosmos' 48분, 공연을 위한 사전제작 비디오, 2020
48min, pre-recorded video for performance, 2020



임형섭
LIM HYUNGSUP

greenherv@gmail.com

임형섭은, 듣는 소리로부터 비롯된 감각을 사람의 목소리, 몸의 움직임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지각화하여 표현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선(line)에, 청각적인 부분에서는 사람의 목소리와 소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의복과 움직임의 관계를 탐구한 작품을 완성하여 가을 중 공연에 올릴 예정이다. 또한, 오래 전부터 구상해 온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한 오디오 비주얼(Audio-visual) 작업을 새로이 제작하고자 한다. 시각예술분야의 작가와 함께 협업하여 선(line)과 공간을 이용한 전시 또한 준비 중이다.

임형섭은 작곡과 전자음악작곡을 전공하였으며,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전자음악워크샵, 존케이지 탄생 100주년 X-Sound 퍼포먼스(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2012), 전자음악협회(KEAMS) 주최 fest-m (서울, 2012), 국제무용협회(CID-UNESCO) 주최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서울, 2016),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1주년 페스티벌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 (광주, 2017), ICMC 2018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 2018) 등에 참여하였다.

LIM Hyungsup majored in composition and electronic music composition. He uses various materials to visualize the sound that one hears. His visual interest is lines, and his aural interest lies in the human voice (character).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will create a piece based on his observ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and [the wearer's] movement and present it as a live performance in the fall. Additionally, he will complete another project that he has been contemplating for some time, an audio-visual work featuring the human voice. LIM is also preparing a collaborative exhibition featuring works that incorporate lines and space with a visual artist.

LIM has participated in multiple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Iowa State University Workshop in Electronic Music; the 100th anniversary of John Cage's birth: X-Sound Performance at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2012); fest-M organized by Korea Electro-Acoustic Music Society (KEAMS), Seoul (2012);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IDance) organized by CID-UNESCO (2016); *Symphony for Asia*, Gwangju (2017); ICMC 2018 at Daegu Concert House, Daegu (2018); and more.



WOODENMAN 7분50초, 오디오비주얼, 2017
WOODENMAN, 7min 50sec, Audio Visual, 2017

지박은 특정한 장르에 국한되기보다는 정형화된 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는 <지박 컨템포러리 시리즈>를 꾸준히 선보여왔다. 작가는 본인의 작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미친 제1, 2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의 사회적 상황 등 정치적 혼란기의 예술에 주목한다. 레지던시에 머물며 작가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전쟁이 전세계 예술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작곡과 머신지능을 이용하여 미디어아트, 그리고 증강현실(AR)로 구현하고자 한다. 머신지능을 통해 수집된 약 1,000여 개의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들을 사건의 발생 순서와 주제별로 나열한 뒤 현대음악으로 작곡한다. 이를 스트링퀼텟(VRI String Quartet)과 사운드 아트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음악, 미디어 퍼포먼스의 형태로 선보일 계획이다.

지박은 미국 보스턴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과정에서 현대음악을, 홍익대학교에서 영상디자인을 전공했다. 클래식을 전공한 후 프리재즈에 매료되었다. 2014년부터 한국과 유럽, 미국을 오가며 해외 아티스트들과 작업 및 공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대무용 음악감독부터 영화음악 작곡가, 즉흥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Ji Park has paid attention to the art born out of the social conditions and political turmoil in the 1900–1950s, the Post-World War I and World War II era. She believes that the period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contemporary art today, and it is the era that she identifies with the most. After analyzing the political situations and notable artists of the time and how they were affected by the wars, the artist will turn the research into a media art piece, which integrates her composition and machine intelligence, and AR technology. The artist will select from about a thousand digital archive materials gathered by machine intelligence. Based on these resources, she will organize the period's significant events by date and create a contemporary music piece for each event consisting of VRI String Quartet and Modular Synth, Sound scape. The final result will be a music and media performance.

Ji Park studied contemporary improvis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the New England Conservatory, Boston and film design at Hongik University, Seoul. Coming from a classical music background, she was fascinated with free jazz. She has continually presented interdisciplinary projects through the *Ji Park Contemporary Series*, demonstrating her unique perspective while not limiting herself to one specific genre.



Ji Park Contemporary Series Vol.19 - 백남준, 50분, 공간, 인형아트 플랫폼 C85
공연장, 2020
Ji Park Contemporary Series Vol.19 - Nam June Paik, 50min, performance, IAP
Theater C, 2020

지역연구오픈랩

LOCAL OPEN LAB PROJECT



최리나 CHOI Lina

최리나의 작업은 한 사회 안에서 각기 다른 개인이 자신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한다. 작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강요나 헤게모니(hegemony)에 대한 거부감이 각자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드러내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주로 인터뷰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 목소리를 변형하여 스피커 위에 진동으로 남긴다. 청각적 요소가 제거된 목소리는 역동적인 사운드의 진동음으로 시각화되어 개개인의 사적이면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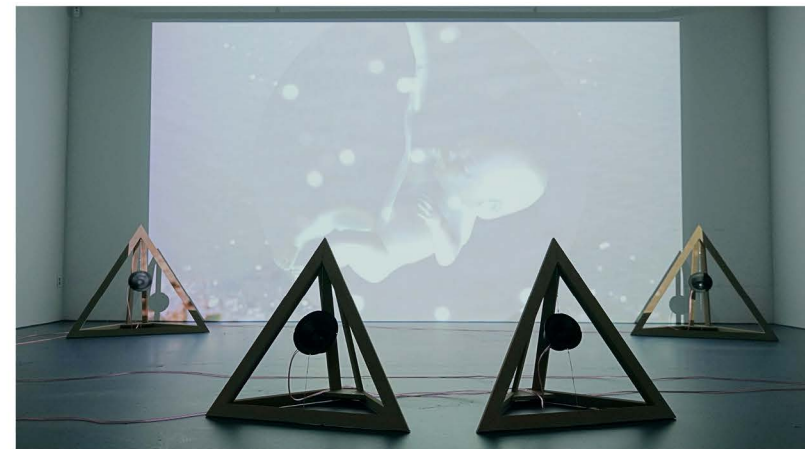
지역연구 오픈랩 작가로서,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기간에는 인천 지역 시민들의 참여와 협업을 바탕으로 4 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노이즈 실험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발견한 소리들은 영상작업의 배경음인 폴리 사운드나 씨네마틱 분위기를 자아내는 효과음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동네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천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설화나 이야기 또는 역사 등에 기반한 영상 작업을 함께 선보인다.

한국과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사운드 설치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최리나는 경기대학교에서 환경조각을 전공하고, 런던의 영국왕립예술대학에서 조각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CHOI Lina generally records voices during interviews and conversations. Then she manipulates them and presents the result as vibrations of the speakers. By removing the aural elements, she visually reveals the dynamic through sound vibrations to tell each individual's trivial and personal stories. Focusing on how an individual expresses their individuality and identity in society, the artist feels that the social pressures and hegemonies stimulate each person's desire to reveal themselves in their own unique ways.

During her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 will explore stories of identity and individuality in her project titled The Noise Lab with Incheoners'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The project is an experimentation to investigate how the sounds created and discovered by the city residents come into a collaborative and interactive piece with the artist's work. Through several workshops to produce varied kinds of sounds, the created sounds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the artist's video work(s) as Foley, instrumental music for generating cinematic atmospheres, or sound effects. The project will be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people in the neighborhood and the mythology, folktales, or historical anecdotes told in the region.

As a sound installation artist currently based in South Korea and London, the artist holds an MFA in sculpture from Royal College of Art in London and a BFA in environmental sculpture from Kyonggi University in Seoul.



엑스트라 오디너리, 8분46초, 단채널영상, 사운드 설치(스피커, MDF), 2021
Extra Ordinarly, 8min 46sec, single-channel video, sound installation (speaker, MDF), 2021

발행처
인천아트플랫폼

발행일
2021년 5월

예술감독
김현진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각담당 큐레이터
이은진, 한옥조

공연담당 프로듀서
박성훈

프로그램 진행보조
백지윤(시각), 권다운(공연)

번역
이수진

디자인
강문식
(도움: 박정모)

인천아트플랫폼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tel. 82 (0)32.760.1000
fax. 82 (0)32.760.1010

©인천아트플랫폼 2021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며, 작가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Publication
Incheon Art Platform

Published on
May, 2021

Artistic Director
KIM Hyunjin

Artist-in-Residence Program

Curator
LEE Eunjin, HAN Okjoh

Producer
Park Sunghoon

Program Assistant
BAEK Jiyeon (Visual Arts),
KWON Dawoon (Performing Arts)

Translation
LEE Sujin

Design
GANG Moonsick
(assistant: PARK Jeongmo)

Incheon Art Platform
3, Jemullyang-ro 218beon-gil,
Jung-gu, Incheon, 22314, South Korea
tel. 82 (0)32.760.1000
fax. 82 (0)32.760.1010

©Incheon Art Platform 2021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copyright
holders.

www.inartplatform.kr
facebook.com/inartplatform
instagram.com/incheonartplatform

 **Asialink**
The University of Melbourne

 **THE PIER-2
ART CENTER**
제2藝術特區

Member of
res art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IST RESIDENCES

